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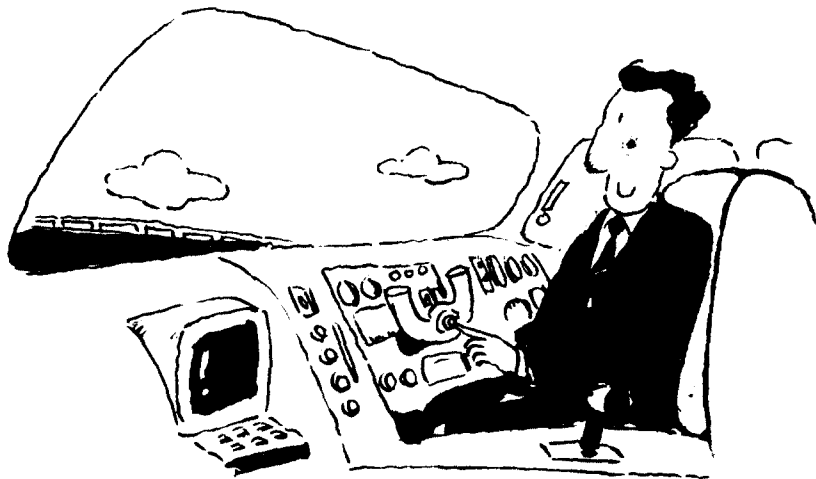
# 「2016년 어느 가을날의 스켓치」

李 秉 基(서울대 전기공학부)

주말을 틈타 백제 문화권의 유적 답사 여행길에 올랐다. 토요일 아침이라서 그런지 고속도로에 차가 쾅 많이 보인다. 물론 옛날 버스전용차선이니 10부제니 하던 시절에 비하면 교통량이 비할 바 없이 적은 셈이지만, 토요일이 완전 휴일로 되던 초엽에만 해도 상당히 차가 붐볐으나, 얼마전 수요일 오후까지도 휴무가 되는 무렵부터는 교통문제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사실 이것은 재택 근무가 본격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고, 이와 더불어 일어난 서울 인구 감소현상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초고속정보통신의 발달로 재택 근무가 본격화되자 사람들은 맑은 공기의 전원 생활을 찾아서 서울을 떠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서울 인구가 단지 몇퍼센트 정도 감소했을 뿐인데도 옛날에 비하면 서울이 텅빈 것만 같다.

곧 자동차가 자동차량운행시스템의 통제권내에 들

어섰다. 오랜만에 재미삼아서 드라이브나 즐겨 볼까 싶어 바깥 차선에 머물렀다가, 생각을 바꿔 좀 더 느긋하게 한잠 자고 사전답사 준비나 좀 해 볼 요량으로 안쪽차선으로 들어가 자동운전모드로 고정시켰다. 이제 나머지 운전은 자동차내의 소형 컴퓨터가 차선 칸막이 표시와 앞뒷차 간격을 감지해서 고속도로를 따라 설치된 운행 통제 장치에 보내주고 운전 방향과 운전 속도를 조정 받아서 해나가면 된다. 일단 자동운전모드로 들어서면 자동차 속도는 전체 차량의 흐름에 따라가게 되므로 때로는 150km를 넘어서기도 한다. 전번에는 대전까지 가는데 1시간 남짓 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고속 철도 사업체 측은 손님이 줄어들어 울상이다. 지리안내장치에 갈길을 입력시켜두고 희망 출구를 공주로 지정해 놓은 후 의자를 쫓기도 팔베개를 베었다.



일주일에 한번씩 여행이나 운동하러 갈때에만 차를 좀 제대로 타 보게 되기 때문에 마음이 약간 상기는 것을 느꼈다. 회사에도 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정기회의가 있을 때나 나가고 나머지는 거의 집에서 일하기 때문이다. 사무실로 사용하는 거실 한쪽 벽에는 커다란 평판 디스플레이를 걸어두고 회사와 동료들 집과 연결하여 비디오 영상을 통해 대화하며 일하기 때문에 재택근무라 해도 회사 근무와 별다른 느낌이 없다. 그리고 보니 이사 승진 건으로 서류 몇몇가지를 제출해야 했는데 깜빡 잊어버렸던 생각이 떠올랐다. 이런 일은 생각날 때 바로 해치워야 한다.

의자를 바로 세우고 운전석 옆에 있는 컴퓨터통신장치를 켜다. 화면이 켜지며, 긴급 메시지 표시와 작업 지시에 대한 상황 보고와 지정 관심 분야에 대한 뉴스 목록이 떠올라 왔다. 먼저 긴급 메시지를 가리키자 비디오로 저장된 친구의 얼굴이 나타나며 음성 메시지가 나왔다. 어제의 하리케인으로 야자수가 쓰러져 덮치는 바람에 집이 파손되었다는 소식과, 복구 자금을 얼마간 유통해 달라라는 얘기였다. 하기는, 마이애미에 별장을 살때 집주변 야자수들을 비디오로 찍어 보여주며 자랑 전화를 해오던 때부터 수상쩍다 싶었다. 마침 그간 투자를 해두었던 AT&T 주식 값이 오르고 있으니 이를 담보로 만 불만 챙겨 봐야겠다.

서울에 있는 단골 증권 거래소를 연결해서 월요일부로 담보 대출해서 친구 구좌에 넣어 주도록 조치한 후, 마이애미에 전화를 걸었다. 마침 집을 비우고 있는지 전화가 그의 영상전화수첩에 자동 연결되었다. 집이 파손되어 밥짓기가 불편해서 인근 한국음식점에 나와 김치찌개나 먹고 있다고 했다. 인명 피해는 없다며 겸연쩍게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며 송금 관계를 통보해 주고 전화를 끊었다.

잊어먹기 전에 서류를 챙겨야겠다 싶어 컴퓨터통신장치를 통해 동사무소에 메시지를 넣었다. 주민등록증과 인감 및 전자서명 증명서를 직접 회사로 보내줄 것과 보낸 후 확인 통보해줄 것을 요청한 후 전자서명을 했다. 실수하여 전자서명을 빠뜨리면 보안장치에 걸려 되돌아오게 되니 조심해야 한다.

뒷좌석이 조용해서 애들이 자나 싶어서 뒤 돌아 보니, 이어폰을 꽂은 채로 평판 TV에 눈을 박고 있다. 무엇인가 싶은 호기심에 몸을 짓겨 살펴보니 브라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올림픽 태권도 중계 방송이다. 보나마나 뻥한 경기일텐데도 애들은 열중이다.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던 옛날에는 금메달

을 절반이상 휩쓸었는데, 근래에는 금메달 한두개 따기가 쉽지 않다.

컴퓨터통신장치를 켜 김에 어제 오후 지시해 놓은 작업 진척 상황을 확인했다. 작업의 분량이 많아서 그런지 진척이 다소 늦은 편이다. 지시된 자료를 추적해 옥스포드대학 도서관과 동경대학 도서관 자료들을 검색했으며, 지금은 미국 국회 도서관 쪽의 자료를 검색 중이라고 한다. 그런대로 월요일 아침까지는 작업이 끝나 있을 것 같았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모음에 들어 갔더니, 올림픽 메달 집계가 나오고 교육법 개정에 대한 여론 조사 소식이 나왔다. 지방 자치체가 굳어지면서 각 지역의 대학에 대한 등록금이 주민과 비주민간에 차등 적용하도록 교육 관계법이 개정되더니, 이번에는 원격 강의를 통한 재택 수강과 원격 전자 학습을 통한 후강의 경우에 대해 등록금 액수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여론 조사이다.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재택 수강을 하는 경우 학교 강의실 시설을 사용하지 않으니 등록금을 낮춰줄 필요가 있고, 원격 전자 학습의 경우는 학생 스스로가 코스웨어들과 전자도서관, 전자박물관등을 접근하여 학습하는 것으로 교수들에 수고를 끼치는 바가 더욱 적으니 등록금을 더욱 낮춰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반대편 의견 또한 타당성은 있다. 재택수강의 경우 등하교의 시간 낭비 없이 수강하도록 학생의 편의를 도와 주는 것이요, 그에 관계없이 교수는 강의를 하게되니 등록금은 마찬가지로 지어야 하고, 또 원격 전자 학습의 경우도 CD롬 코스웨어 그 자체는 교수가 노력해서 제작한 것이니 강의에 못지 않은 시간과 경비의 투여가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등록금은 마찬가지로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하튼 초고속 정보 통신망이 생활화되면서 교육의 의미 그 자체가 변질되고 있고, 그로 인한 논쟁은 쉬는 날이 없다. 다행히 컴퓨터를 통해 국민의 여론 조사를 즉시즉시 수행하여 이를 토대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논쟁만지속하는 일은 없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옛날 극성을 부리던 과외 공부라는 것이 사라지고,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로서 회사들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한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대개 자기 지역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하되 저명한 타대학 교수의 강의를 신청하여 원격 강의나 원격 전자 학습을 통해 수강하는 쪽을 선호한다. 또 해외의 대학에 대해서도 학점 상호 인정제가 실시되

고 있어 유학에도 크게 관심이 없다. 이러한 현상은 재택 근무와 재택학습이 관련 법제도들과 함께 만들어낸 결실로서, 50여년에 걸친 과의 열풍에 깨끗이 종지부를 찍은 역사적인 변혁이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원로층에서는 선후배간의 끈끈한 정이 끊어진 점을 아쉬워하고, 대학이 더이상 낭만의 장소도 인격 도야의 장소도 아니게 된 점을 개탄하고 있다.

생각해 보면 초고속 정보 통신이라는 것이 정치도 많이 바꾸어 놓았다. 그 옛날 기세등등하던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면서 한풀기가 꺾이기 시작하더니, 정보통신망을 통한 재택투표와 컴퓨터 여론조사가 본격화되자 그 위상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었다. 민의를 대변한다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고, 또 그것을 빌미로 여러가지 트릭을 즐길 수도 있었으나, 민의가 직접적으로 또 정확하게 집계되는 상황이 되니, 설 땅을 잃게 된 것이다. 그래서 최근들어 그 역할이 변하해가는 양상이 뚜렷이 나타나는데, 주로 파악된 민의를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하거나, 또는 반대로 입법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을 국민들에게 설득시키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 그 옛날,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3선개헌」을 해야 한다던, 또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시월유신」을 한다던 어느 대통령의 일을 생각하면, 금석지감을 금할 수 없다.

바뀐 것으로 치면 법조계도 마찬가지이다. 검색 동원 가능한 판례가 얼마되지 않았던 시절, 형량 부과의 정도가 정량적인 저울질 없이 가해졌던 시절에, 변호사나 판사들은 황금기를 누렸었고, 고액수가에 전판예우가 성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그 언젠가 「국제화·세계화」의 개혁조류가 밀고온 「로스쿨」화 여론에 대해서도 한때 저항의 몸부림을 치기는 했으나, 초고속 정보 통신의 거센 파고를 넘을 수는 없었다. 모든 판례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완전 저장되고 모든 형량이 그 물망처럼 촘촘하게 눈금 매서져 전문가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니 변호사의 유창한 언변으로도 더이상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기실, 법조인들이 허황된 권세의 꿈을 버리고 착실한 전문직업인으로 정착하여 사회 속에 제 몫을 하게 된것은 초고속 정보통신이 가져다 준 커다란 혜택이 아닐 수 없다.

요즈음 특별히 미술에 관심이 생겨 관련 뉴스들을 모으도록 집 컴퓨터 통신장치에 지시해 두었던 것이 어찌되고 있나 접근을 해보았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들은 언제라도 전자박물관이나 전자미술관에 연결하여 감상할 수 있으므로, 최근 작품만 수록하도록 지시했었다. 곧 지난 주 한 주 동안 있었던 각종 미술 전시회 뉴스가 그림들과 함께



화면에 떠올랐다. 신문사 뉴스와 방송국 뉴스가 섞여 있는데, 전자신문도 동영상 사진과 음성 해설을 곁들여 보내오니 방송과 이제는 별반 차이가 없다. 하기는 이미 신문사와 방송국들이 합병하거나 공동 운영하는 곳들이 많아졌다만, 비디오아트와 행위예술 작품들이 간간히 보이고, 액자형 평판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동영상 작품들도 눈에 띈다. 무선 채널을 통하여 전송되다 보니 화질이 떨어져 색감을 느낄 수가 없다. 이것은 아무래도 집에 돌아간 후 HDTV 대형화면으로 감상해야 하겠다. 근래의 작품 동향을 보면 공감할 수 없는 전위 예술풍의 추상화와 복고조의 사실화들이 양극으로 치닫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가지 아이러니는 컴퓨터 그래픽 화가들이 오히려 더 고전적 낭만적 화풍을 띤다는 것이다.

지리안내시스템 화면을 훑듯 보니 이미 천안을 지났다. 늦기 전에 공주 부여 사전 답사를 해두어야겠다. 컴퓨터통신 단말로 우선 국립 중앙박물관의 데이터 베이스에 접근하여 백제 시대의 유적과 유물에 관해서 살펴 보기로 하자. 뒷좌석 아이들에게 TV를 그만 보고 함께 사전 답사에 들어가자고 했더니, 국민학교 5학년 둘째가 덤석 버튼을 받아 능숙하게 데이터 베이스를 헤쳐 나간다. 집에서 숙제할 때 늘상 전자도서관과 전자 박물관에 접근하여 자료를 찾는지라 이 방면에서는 아이들이 전문가이다. 얼마 전 복원 완료된 백제 문화권 전모가 화면으로 소개되었다. 무령왕릉에 관하여 물으니, 왕릉의 입구에서부터 내부 전체를 두루 비춰주며 역사적인 내력과 예술적인 특징을 설명해 준다. 얼핏, 공주에서 부여까지는 뱃길로 돌아보는 것이 운치가 있을듯 싶은 생각이 들어, 승선권 예약 관계를 물어보니 부여 박물관 측에 알아보라고 안내한다. 부여를 연결하여 확인하니 마침 표가 매진되었다 하여, 대신에 부여 백마강 유람선 승선권을 예약했다.

사전 답사를 끝내고 나니 어느덧 차가 공주 출구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 왔다. 차를 수동 운전 차선으로 끌어낸 후 출구를 나서서 조금 달려가니 공주 시내에 다다랐다. 공주 시내 지리에 어두워 지리안내장치를 들고 목적지를 무령왕릉으로 지정하니 그곳에 이르는 길 세 가지가 나타났다. 그 중에서 교통량이 제일 적다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길을 따라서 차를 몰아 가노라니 차창에 햄버거 집이 스쳐 지나간다. 이런 전통 유적지까지 와서 누가 저런 걸 먹을까 생각하는 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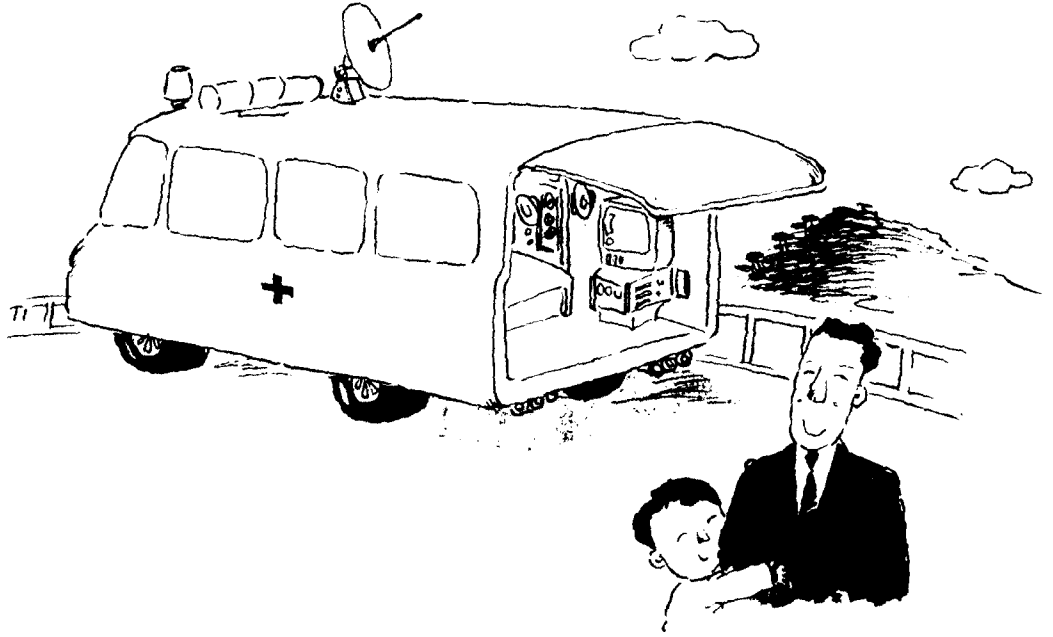
부여 호텔에서 전화가 왔다. 마침 예약 취소자가 생겨서 방이 하나 나왔으며 예약을 확정지으려면 선불지급하라는 것이다. 곧 은행 계좌에 접근해 해당 금액을 호텔 계좌로 지급하도록 명령문을 보낸 후 호텔 측의 수취 확인을 받았다. 이제 오늘은 마음놓고 배도 타고 산보도 하며 놀아도 될 것 같다.

### ☆☆☆

역시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와서 보는 것이 더 친근감이 드는구나. 싶은 생각을 하며 공주를 떠나 부여를 향했다. 컴퓨터 답사도 눈으로 보고 설명도 곁해서 들을 수 있지만, 만져 보고 냄새 맡을 수는 없다. 무령왕릉도 와서 보니 비로소 조상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체취를 맡을 수 있는 것 같다. 아이들에게 감상을 물으니 학교 멀티미디어 교실에서 가상 현실장치를 통해 보던 것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다 하며 점심식사 후 남겨 온 프렌치 프라이를 무심코 씹고 있다. 역시 애들의 생각은 식성만큼이나 단순하구나 싶다.

백제 문화권 유적 복원 사업 당시, 공주-부여간 길을 8차선으로 확장하여 관광 편의를 도모하자는 의견이 컴퓨터 여론 조사에 올랐던 일이 생각났다. 당시, 옛정취를 살리기 위해서는 2차선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쪽에 표를 던졌었다. 그 옛날 황망히 친도하던 백제 성왕을 추억하며 그러한 주장을 했었고, 그 여론이 우위를 점해 채택됐을 때는 패재를 올렸었다. 그러나, 막상 그 길을 따라 운전해 가노라니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길옆에 한들거리는 아름다운 코스모스 행렬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아마도 고속도로 자동차량운행시스템과 고속철도에 길들여진 생활 탓이리라.

가는등 서는등 구불구불 한 시간쯤 간 후, 짜증이 눈높이까지 올라왔을 즈음, 부여 시내에 들어서며 눈앞에 도로가 탁트였다. 시원한 맛에 넓다 차를 질주하다가 그만 충돌사고를 낼 뻔하며 급정거했다. 뒤돌아보니 그 충격에 머리를 받았는지 작은애가 피를 흘리고 있다. 즉시 긴급구조대를 부른 후, 의사인 친구에게 전화를 거니 가족들과 함께 주말등산을 떠났다는 녹음메시지가 나왔다. 평소 초고속정보통신 때문에 편할 날이 없다고 불평하며 등산을 떠날 때는 항상 영상전화수첩을 두고 떠나던 것을 생각하며, 찾기를 단념했다. 곧 당도한 앰블런스에 작은애를 태우고 함



게 가며 보노라니, 간호사와 구급사의 동작이 그렇게 민첩할 수가 없다. 작은 애 이름과 내 주민등록번호만 가르쳐 주었을 뿐인데, 곧 컴퓨터통신장치를 통해서 서울 단골 병원에 있는 병력기록을 꺼내오고, 부여병원에 연결하여 혈압 체온 등을 재어 보내고 엑스레이를 찍어 보낸 후, 당직의사와 통화해서 단층촬영장치를 준비시켜 두고 단층촬영장치 판독 전문의를 찾아 영상연결해 두도록 지시했다. 잠시 후 병원에 도착하니 단층촬영장치가 준비되어 있고 광주와 대구에 있는 전문의 두 명이 영상전화에 나와 대기하고 있었다. 곧 단층촬영이 끝나자 그 영상을 놓고 TV화면 속의 두 의사가 서로 상의하더니 작은애를 정밀 진료 화면을 통해서 간단히 진찰한 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진단을 내렸다. 갑자기 안도감이 들며, 혹시 팬스레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이 아닌가 싶어 쑥스러워졌다. 광주와 대구의 전문의들과 병원측에 감사말씀을 드리고 병원문을 나서자, 그때에야 작은애가 씩웃으면서 말을 걸어왔다. 머리에 묻었던 것은 피가 아니고 프렌치 프라이를 찍어먹던 캐첩이었다고.

한참 소동을 피우고 난 후인지라, 백마강 강바람이 더욱 시원하다. 매표소에 가니 승선권 4매가 준비되어 있었다. 영상전화수첩을 꺼내 계산모드로 놓고 셈을 확인한 후, 다시 결제 모드로 돌려서 금액 지불을

명령했다. 컴퓨터 모니터 상에 입금내역이 확인되었는지 곧 승선권을 내주었다. 유람선을 타고 백마강을 한 바퀴 돈 후, 고관사에 내렸다. 뒷뜰 바윗틈에 서려 있는 고관의 붓집은 옛날 그대로이고, 그 밑 샘물맛도 옛 그대로이다. 부소산에 올라 산책하며 내려와 부여호텔에 들어서니 로비 HDTV 화면을 통해 저녁뉴스가 방영되고 있었다. 이번에도 또 사설 데이터베이스 침입 사건과 은행강도 사건 얘기다. 총들과 은행을 털었던 것은 옛날의 이야기이고, 요즘은 온라인 송금되는 데이터를 탈취·변형시켜 다른 구좌로 입금되도록 하는 해커깡 사건들이다. 도둑질을 하려 해도 시대에 맞는 기술을 익혀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돈들이 모두 전파를 타고 다니니 이제 무슨 재주로 총쏘아 빼앗겠는가.

낮 동안의 야단법석 때문에 피곤해져서 곧 바로 귀가하고 싶어졌다. 프런트 데스크에 가서 예약취소를 하고 입금액을 조건부로 환불입금받기로 했다. 아무래도 부여사적지들은 다음 기회에 둘러 보아야겠다. 잘 다듬어진 지방도로를 따라 서해안 고속도로까지 간 후 자동운행차선으로 들어섰다. 지리안내장치에 갈 길을 지정해 두고 서울 톨 게이트 5킬로 지점에서 경보 울리도록 맞추고는 잠을 청했다. 뒷 좌석에는 이미 코고는 소리가 난다. 앞으로 한시간 남짓 가량은 폭 살 수 있을 것 같다.